

농어촌공사,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AI 기반 농지관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저활용 농지 발굴·농지대장 전환 등 활동 청년농 수요 반영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스마트팜 등 신규 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고객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설립한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과 농지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정착해 고객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고 자평하면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운영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를 목표로 출범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관의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 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정보를 수집해 분석함과 동시에·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한 뒤 농식품부에 제공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전용과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됐다. 또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다. 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했던 농지정보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기여했다.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관리하게 돼 더 체계적이며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 4000억원) 규모로 집행하면서 농업인 지원도 확대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농어촌공사는 평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관리원의 성과를 토대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최초 건청궁 전등모형 등을 보유한 전기박물관이 코로나19 이후 2년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리뉴얼을 거쳐 최근 재개관했다. 사진은 한전의 전기박물관 내부 모습. <한전 제공>

전력사업 역사 한눈에...한전 전기박물관 재개관

한국 최초 건청궁 아크등 복원 등 초기 전력사 희귀자료 별도 전시

우리나라 최초의 건청궁 전등모형과 에디슨다이너모 발전기를 보유한 한국전력 전기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쳤다. 한전은 서울시 서교동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전력홍보관 3층에 조성된 전기박물관의 재정비를 완료하고 문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박물관은 전기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박물관이다. 2001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매년 8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전기박물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전은 이 기간 설

비를 현대화하고 전시유물을 재배치하고 복원했다. 이번 리뉴얼은 유물을 단순 나열하는 백화점식 전시가 아닌 '연결·Connect On'을 콘셉트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를 '사람·생각·공간·시간'으로 나눠 스토리텔링 방식의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눈 여겨 볼 점은 다양한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전지인 건청궁의 아크등(Arc Lamp)을 새롭게 복원했다는 점이다. 이밖에 한성전기 설립과 한양의 전차 도입 등 초기 전력사에 중요한 인물인 해리 라이스 보스트윅(Bostwick)와 한국전력 박영준 초대사장 후손의 희귀 기증자료를 기획전시실에 별도로 전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ISA, 협력업체 간담회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7일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및 23년도 상반기 협력업체 간담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는 인터넷·정보보호 분야 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처음 개최했다. 대상은 KISA 사업을 통해 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택근무, 문화의 날 조기 퇴근 등 일·생활 균형을 실천한 ㈜케이에이에스에게 돌아갔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 1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일자리 배려, 리프레쉬 휴가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한 ㈜블루데이타시스템즈, ㈜코어시큐리티가 수상했다. KISA는 수상기업 대상으로 KISA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수산물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

완도 청산바다 영어조합법인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0일 완도군 소재 전복 가공·수출 전문 생산자 조합법인인 청산바다 영어조합법인(대표 위지연)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친환경 수산물 양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현장을 찾은 김춘진 aT 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2위 전복 생산국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변화로 생산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양식 어업을 위한 친환경 양식은 필

수"라며 "공사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 양식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양 생태를 보전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산바다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 지정 '한국전복 수출 선도조직'에 선정됐으며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취득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산을 추구하는 친환경 식품기업이다. 매년 200t 이상의 전복을 베트남, 일본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바른채용 컨퍼런스 참여



ESG와 공감채용 사례 발표 올바른 채용문화 확산 강조

한전KDN은 최근 지난 17일 열린 '제4회 바른채용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전KDN의 ESG와 공감채용 사례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바른채용 컨퍼런스'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사채용 관계자 및 책임자들이 함께 최신 채용트렌드와 베스트 사례를 공유하고 올바른 채용문화 확

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청년 취업을 위해 기부된다. 행사 발표자로 참석한 권수현 한전KDN 차장은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인 ESG경영과 채용 업무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고 많은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공감채용의 의미와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채용 특성과 공기업의 채용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절판 판 매 중

이방인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